



*b KB 국민은행

필리핀 팡가시난팀 9월 보고서

김혜지, 이해진



Ra🌍nAtti

첫 번째 장

우리 소개

김혜지



안녕하세요.

ELENA로써 필리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라온아띠 14기 김혜지입니다.

여기, 팡가시난에서 인사드려요!

MAGANDANG BUHAY PO!

저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늦잠을 좋아해요.
겹대가리가 없기로 유명하며 오토바이의 매력에
새삼 눈뜨고 있는 중입니다.

롤리가 지어준 필리핀 이름은 '엘레나'이지만
팡가시난 이름은 '이낭'이에요.
근데 '이낭'이 엄마라는 뜻이어서
다들 저를 엘레나라고 부릅니다.

이 곳에 오기 전에 '라온아띠는
내게 매일 스펙타클한 경험들을 안겨줄거야' 라고
생각 했었지만 사실 지금 제게 라온아띠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과 일상에서의 소소한 실천이
얼마나 소중한 지에 대한 깨달음으로 가득합니다.

팡가시난YMCA와 더불어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라면 생각하거나 겪어보지 못할 경험들과도 만났습니다.

이 한 달동안의 삶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 지 이 보고서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Salamat po.

이해진



안녕하세요! Magandang araw po!
“진심을 다해 살아내고 싶은”
라온아띠 14기 필리핀 팡가시난팀 이해진입니다.

한국 이름이 '바다의 보배'라는 뜻을 갖고 있어
이곳 필리핀에선 'Marina(Marine+a)'로
불리고 있습니다.

팡가시난 이름은 'Maring'인데요.
이곳 친구들은 아줌마 이름이라고 놀리지만,
나름 귀여운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름처럼 수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해질녘 팡가시난 YMCA 수영장은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좋아하는 것을 꼽아보면 엄청 더울 때 먹는
세븐일레븐소프트아이스크림,
생각하면서 천천히 혼자 걷기,
주룩주룩 내리는 비 소리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이해진이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몰랐는데,
신기하게도 이곳에선 너무도 쉽게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최소한 지금까지 '진심을 다해 살아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친구들이 감사하게도 'Marina'라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은 4개월의 시간도 이곳 친구들과 함께 진심을 다해 살아내고자 노력하려 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Salamat po!

롤리 & 김



안녕하세요.

저는 **Rolly C. Ferrer**입니다. 저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며 먹는 것과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끔은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해요 😊

저는 검은색 옷을 좋아하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제 모습이 어떤 지 체크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커뮤니티와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coordinate합니다. 또한 따갈로그어와 팡가시난어를 영어로 통역하며 팡가시난 YMCA 프로그램과 지난 라온아띠 활동들을 소개합니다.

따갈로그어와 팡가시난어를 라온아띠 멤버들에게 가르치며 아띠하우스에서 요리를 하기도 합니다. 매일의 예산을 관리하는 일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ym Estrada** 입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치킨 커피를 좋아합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사랑해요. 사람들이 웃는 것을 좋아하며 모자를 즐겨 씁니다.

저 또한 커뮤니티와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coordinate합니다.

또한 따갈로그어와 팡가시난어를 영어로 통역하며 때때로 운전을 담당합니다.

특히 아침에 잘 일어나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 주로 아침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9월

mon	tue	wed	thu	fri	sat	son
	1	2	3 마닐라 도착	4 Orientation in NYYP by Bishop/ Christina	5 팡가시난 YMCA 도착	6 Dagupan 시티 투어
7 팡가시난 YMCA Orientation by Rolly	8 아띠하우스 입성	9 Lingayen Beach / 팡가시난 공공기관 방문	10 첫 Dumpsite 방문 with Jurick	11 Dagpan city High school 교내 행사 구경	12 신나게 카드게임, 친해지는 시간	13 돌잔치 초대 받음
14 푸가로 첫 방문	15 살라핑가오 첫 방문	16 Dumpsite 왼쪽을 둘러보기 with Veil	17 따갈로그어 수업	18 Dumpsite 오른쪽을 둘러보기	19 아띠 하우스 대청소	20 YMCA 수영장 이용
21 Dumpsite 왼쪽을 둘러보기	22 Dumpsite 오른쪽을 둘러보기	23 푸가로 데이케어 센터 방문 with Mark	24 푸가로 아이들과 친해지기 with Mark	25 아카데미 올림픽 준비 돕기	26 아카데미 올림픽	27 휴식
28 Dumpsite 페이스 페인팅 with Reynald	29 Dumpsite 페이스 페인팅	30 푸가로 데이케어 센터 종이접기 수업				

두 번째 장

활동지

이야기

덤프 사이트



“Bonuan Dagupan city Dump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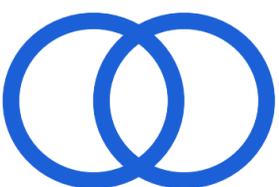
Bonuan blue beach 옆에 위치

다구판 시티의 모든 쓰레기가 이 곳으로 모임

활동지는 크게 Right side와 Left side로 나뉨

(Right side 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더 많은 쓰레기가 몰려 있음)

매주 월요일, 화요일 9-11시 지프니를 이용해 번갈아 가면서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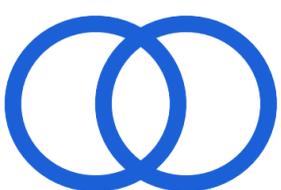
덤프 사이트



현재 덤프사이트의 상황

첫 번째 방문 때와 한 달 뒤를 비교해 봤을 때, 쓰레기의 양이 현저히 늘었다. 덤프 사이트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 집까지 가는 길이 전부 쓰레기로 채워졌다.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점점 험난해 지고 있다. 10기부터 라온아띠 활동을 이어온 코디네이터 롤리는 "지금까지 봐왔던 덤프사이트 상황 중 최악"이라고 이야기했다.

다만 한 가지 다행인 소식은 덤프사이트 주민들이 내년 3월에 이주한다는 것. 이주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왔지만 미뤄져 왔는데(최근까지만 해도 12월에 이주할 예정이었다), 3월 이주는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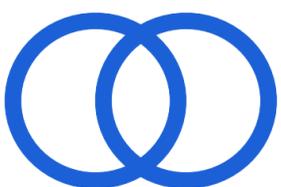


덤프 사이트



우리의 상황

담당 코디네이터인 김이 한동안 아파서 함께 활동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팡가시난 YMCA volunteer 베일, 레이날드, 주릭이 우리를 도와 함께 활동했다. 다만, 많은 아이들을 상대로 활동하다 보니 '2명'이라는 팀원의 숫자가 현실적으로 한계로 다가왔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한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덤프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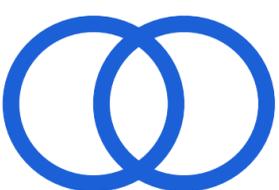


(우리가 본) 덤프사이트 사람들의 상황

대부분 분리수거 되어 있지 않은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이를 junk shop에 팔아 돈을 벌고 있다.

대개 집안의 남자들이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어머니들은 빨래를 하거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인구 중 아이들의 비율이 현저하게 많은데, 함께 뛰어놀 만한 또래 친구들이 많다는 점이 아이들의 유대감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양이나 강아지, 닭, 오리와 사람들이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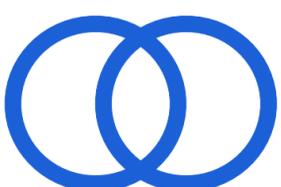
덤프 사이트

우리가 덤프사이트에 가는 목적

- 목적 : 환경 문제, 특히 쓰레기 처리 문제를 직접 마주하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 세부적인 목적:
 - * 환경, 특히 비닐 봉지 사용, 분리수거 등에 대한 우리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 * 덤프사이트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있고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정도로 생활하고 있다(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 반면에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뛰어나다.
 - 아띠 클라세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교육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 * 유리, 쓰레기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등으로 온몸에 상처가 많은 아이들을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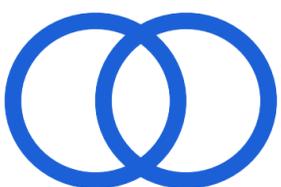
활동 및 변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소개하고 관계 맺기
장바구니 사용 생활화하기
받은 비닐 봉지 모아서 재활용하기
아이들 페이스 페인팅, 알파벳 교육 (정식 아띠클라세는 아직 아님)
(전 기수 활동 이어서) 상처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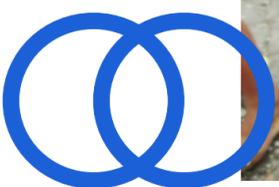
덤프 사이트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관계맺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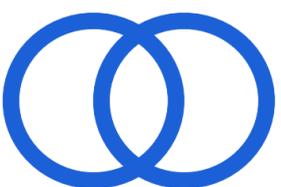
덤프 사이트

페이스 페인팅



덤프 사이트

알파벳 교육



덤프사이트 개인 소감



첫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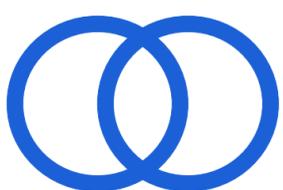
덤프사이트를 처음 방문하고 난 다음, 시내로 돌아오는 길에 롤리가 내게 물었다.
“덤프사이트 어땠어?”

내 생각보다 당시 난 굉장히 무덤덤했다. 롤리는 덤프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 중에는 밥을 채 못 먹고 울었던 사람도 있었고 한동안 말을 잃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나도 내 자신에 대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왜 나는 덤프사이트를 그냥 아무 충격 없이 받아들였을까 생각해보았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 주위 사람들의 강력한 간증이 한 몫을 했었던 것 같다. ‘기가~ 막힌다.’ ‘장난 아니다’ 등의 썸 발언들과 쓰레기가 산더미로 쌓여져 있는 사진들을 보고 한국에서부터 면역체계가 어느 정도 자라왔던 것 같다. 그리고 평소에도 나는 무덤덤한 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첫 방문에서 나를 더욱 강하게 해주었던 것은 사람들의 웃는 모습이었다. 특히 덤프사이트를 처음 방문했던 날이 거기에 살고 있는 청년 ‘제프리’의 생일 다음날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일축하한다고 노래를 불렀더니 제프리는 활짝 웃는 얼굴로 대뜸 탄산음료를 우리에게 대접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그 탄산음료를 나누어 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다.



덤프사이트 개인 소감

문제투성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덤프사이트의 환경이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 곳의 냄새는 나의 무덤덤함도 이긴다.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나는 덤프사이트를 갈 때마다 그 곳의 환경에 압도 당하기도 한다. 얼마나 지나야 익숙해질 수 있을까. 무엇보다 아이들이 위험한 화학물질이나 유리, 구더기 위를 맨발로 자연스럽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헉 하고 숨이 막힐 때도 있다. 그리고 그 옆을 지나다니는 오리나 닭, 피부병에 걸린 강아지들까지. 그곳의 환경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만들고 있는 온갖 문제들을 가져다 놓은 듯한 느낌이 든다. 대표적으로 환경 문제, 위생 및 보건 문제, 사람들을 이주하는 데 얽혀 있는 정치적 문제, 교육 문제 등등 단순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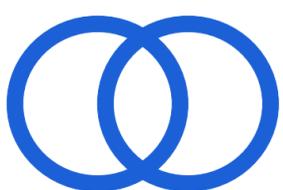
그래서 단순하지 않은 만큼 덤프사이트를 떠올리면 가슴 한 켠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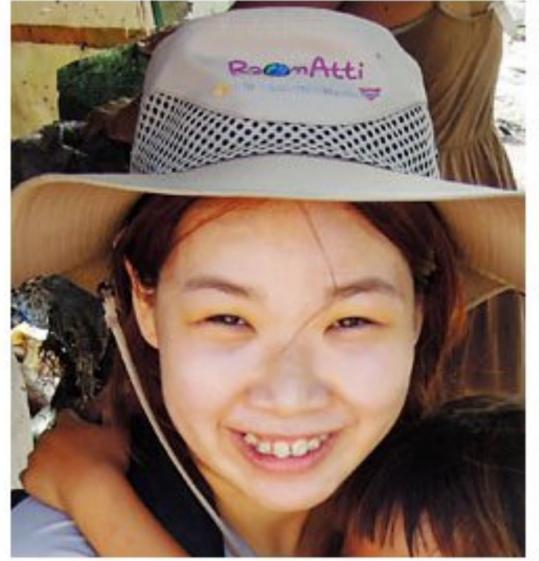
한 번은 쓰레기더미 속에서 ‘짜왕’ 봉지를 보았다. 처음에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리고 “나도 아직 먹어보지 못한 짜왕 봉지를 필리핀에서 보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것은 ‘우리, 개인이 만들고 소비하는 것이 정말 덤프사이트 사람들의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나비효과였다.

덤프사이트에서의 활동이 끝나고 아띠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알콜로 손을 씻어낸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지만) 그리고 살다 보면 때때로 어쩔 수 없이 비닐 봉지를 쓰게 될 때도 있고 쓰레기를 만들어낼 때도 있다. 그렇게 마치 내가 덤프사이트를 잊은 것처럼, 내 삶 속에서 덤프사이트를 단절시킨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의 생활 반경과 그 곳을 다른 세계인 것 행동하고 뒤에 후회하는 것이 정말 괴롭다.

잊어버리면 편할 것을, 계속 떠올리다 보면 괴로워진다. 하지만 그냥 묻어버리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가짐이라면 진정으로 덤프사이트와 연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덤프사이트 개인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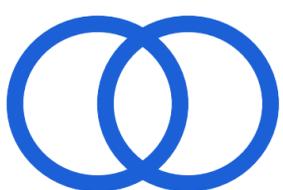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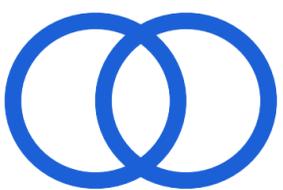
"난지도 쓰레기 산 위로 쏟아져 내리는 불별은 저주였다. 그 산에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썩어 가는 일과 썩어가는 냄새뿐이었다." 정연희 씨는 80년대 한국의 덤프사이트, 난지도를 이렇게 표현했다. 처음 덤프사이트에 갔을 때, 나 또한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일종의 '저주'로 함축되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암울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덤프사이트에 가면서부터 '살아있는 것들'을 발견하시 시작했다. 굉장히 대조적이지만, 셀수 없이 많이 쌓여있는 비닐봉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로 그것이었다. 쓰레기산의 8할이 비닐봉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무심코 쓰고 버린 비닐봉투가 내 눈 앞에선 사라질지언정 영영 사라진 것은 아니었음을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이후로 물건을 살 때마다 생기는 비닐봉투를 보며 치를 떨었는데, 아예 쓰지 않고 살 순 없는 것이 현실이라 답답한 마음이 컸다.

누군가가 버린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고 그 위를 맨발로 뛰어다니며 노는 아이들은 쓰레기와는 다른 맥락으로 살아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지만, 낮선 이들의 손도 덩석 덩석 잡아주는 순수한 이 아이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환경이 무색하게 밝게 자라나고 있다. 그런데도 가끔은 이 아이들 뒤로 덤프사이트가 아닌 어떠한 다른 환경을 그려보곤 한다. 그러면 좀더 아프지 않고 자라지 않을까, 그러면 좀더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지 않을까, 그러면 좀더 안전하진 않을까 상상한다.

그러나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의 부모가 선택한 최선이 덤프사이트라면 감히 내가 어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아직은 모든 것이 처음이라 여러 감정이나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듯하다. 이 고민이 언제쯤 답이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마주하며 끊임없이, 치열하게 생각해 보려 한다.





푸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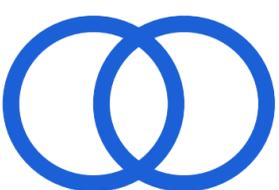


“Barangay Pugaro”

매주 수요일, 목요일 9시 - 11시

Magsaysay 피쉬마켓에서 보트를 이용해 방문

(10,11, 12기 활동에 이어서) Pugaro West 데이케어 센터 보조



푸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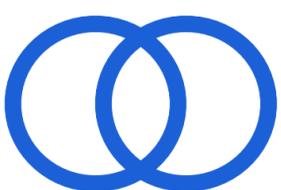


라온아미 활동 상황

처음 푸가로에 방문하여 지역 탐방을 하는 와중에 푸가로 데이케어센터 'Marieta' 선생님께서 도움을 요청받았다. 이후 일주일에 2번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1시간 동안 선생님의 수업 계획에 맞춰 아이들의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데이케어센터 아이들은 3-5세로서,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담당 선생님이 한 명밖에 없는 관계로 학부모들이 수업에 관심을 갖고 간간히 도움을 주고 있다. 푸가로 아이들은 Marieta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체로 'Shy'한 편인데 수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2,13기의 그린하우스 프로젝트는 어떻게 비 피해를 막을 것인지 등의 고민 중에 있어 직접적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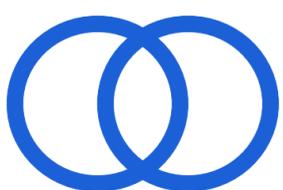
푸가로



(우리가 본) 푸가로의 상황

푸가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Dagupancity, Barangay Pugaro, 팡가시안 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설치되었던 물 정화 시스템 장치는 약 2년이 지난 지금, 관리 부족으로 더이상 쓸 수 없게 되어있다. 물 정화 시스템 재정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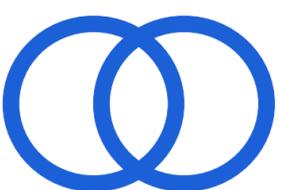
푸가로에 가기 위해선 주로 보트를 이용하는데, 이 보트는 일정 승객이 모이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는다. 이용객이 많을 땐 바로 출발하지만, 어떤 때는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그렇기에 바로 출발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는 평소 1인당 배값의 10배의 돈을 지불하고 배를 대절해야 한다. 이러한 불안정한 교통 상황에 대해, 코디네이터 및 주민들과 이야기해보며 면밀히 조사하고 이곳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아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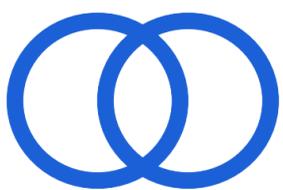
푸가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몸놀이

페이스 페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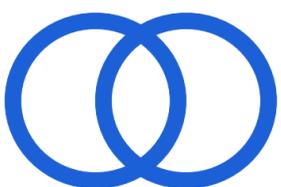


종이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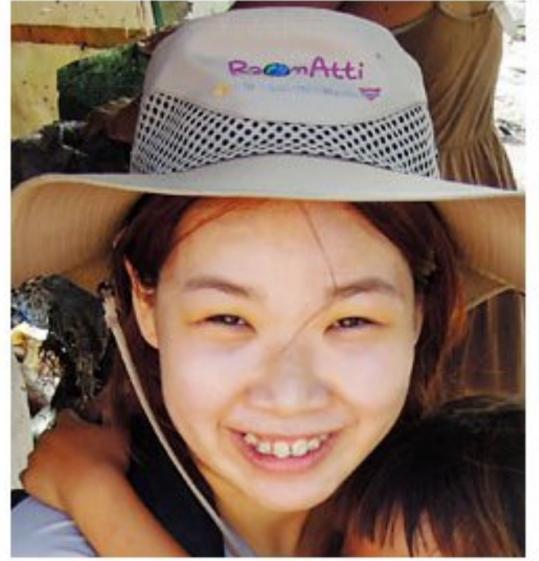


푸가로

푸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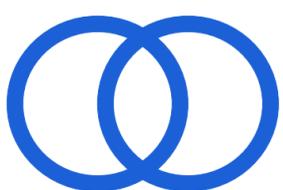
푸가로 개인 소감



덤프사이트는 가시적인 문제가 많은 사이트라 '우리가 왜 이곳에서 활동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진 않았다. 반면에, 푸가로는 '한적한 섬마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자신들의 방식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가서 "저희가 할 일이 없을까요?"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우리가 따갈로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이 많았다. 마을을 돌아보며 "Magandang umaga po(아침 인사)"를 열심히 외칠 뿐이었다.

그러는 와중에 데이케어센터에서 일손을 돕게 됐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 지역훈련에서 배운 내용을 상기하며 열심히 준비해서 수업하곤 했는데, 마음 속에 "왜"라는 물음이 계속해서 남았다. 덤프사이트 아이들에 비해 푸가로 아이들은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이런 의구심이 더 들었던 것 같다. 은연 중에 덤프사이트와 푸가로의 아이들을 비교하고 있었고, '푸가로의 아이들은 내가 굳이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어'라는 생각이 컸다.

한편으론, '푸가로'라는 사이트에 애착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반성했다. 문제(혹은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활동을 데이케어센터에 국한시키지 않고, 데이케어센터를 주축으로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여러 동네 주민들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여러 아쉬움이 남지만 이 반성을 계기로 활동에 적극을 기해야 겠다.



푸가로 개인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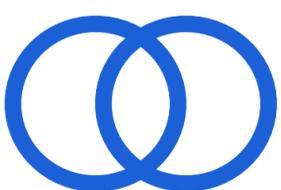


첫 인상

푸가로를 방문할 때마다 우리는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인사를 받는다. 여자, 남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아농 사요-’를 외치기 시작한다. (니 것이 무엇이나는 뜻인데, 필리핀의 짬뽕 광고에서 나온 말로 ‘안녕하세요’ 라는 말과 비슷해서 유명해졌다고 한다)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인인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 데이케어센터 벽에는 특히 라온아띠가 활동했던 사진이 벽에 붙여져 있고, 선생님께서는 본인께서 10기 단원 중 한분과 페이스북 친구라면서 자랑스럽게 핸드폰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가 이만큼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평가시난에 온 5번째 팀이기때문에 받을 수 있던 메리트였던 것 같다.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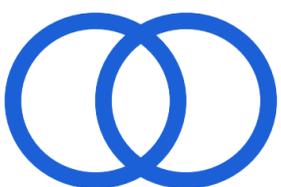
데이케어센터에서 만난 아이들은 정말 천사같이 이쁘다. ‘아이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누군가의 말이 절로 되새겨지게 하는 아이들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아이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에 약하다. 일주일에 딱 두 번 있는 수업이지만, 매번 준비할 때마다 애를 먹는다. 생전 아이들과 지내본 적이 없어서 아이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 지 정도의 기본적 정보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곳 아이들을 더 즐겁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매번 푸가로로 향하는 내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반면에 단정하게 교복을 입고 수업을 듣고 있는 푸가로 아이들을 보고 있자면 마음 한 쪽에 덤프사이트 아이들이 생각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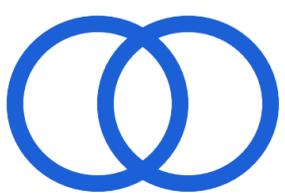


푸가로 개인 소감

고민

처음에 나는 왜 우리가 푸가로에 가야할까라는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이끌려 갔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데이케어센터 아이들과 만나고 싶어서'가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방인의 눈을 가진 내가 푸가로에 갔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걸 발견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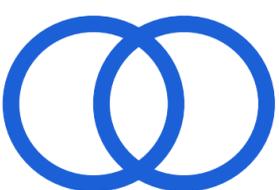




살라핑가오



지난 13기가 청년들과 함께 활동했던 살라핑가오 지역은 현재 학기가 시작하여 청년들이 모두 학교로 돌아갔다. 따라서 14기는 현재 살라핑가오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라핑가오에 살고 있는 제프와 제럴딘과 함께 살라핑가오 지역을 둘러보던 와중에 우연히 살라핑가오 공립 고등학교 친구들이 걸스카우트에서 주최하는 춤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장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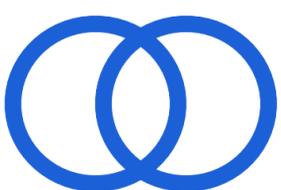
밖
의

이
야
기

마닐라 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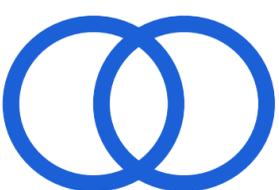
마닐라에 도착한 뒤 2박 3일 동안 YMCA of Manila Hotel에서 머무르며 Orientation을 받았다. YMCA of the Philippines의 Bishop 교수는 우리에게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고취시켰고 특별히 필리핀의 문화에 대해서 덧붙여 이야기해 주었다. YMCA of the PH의 Volunteer로 활동했던 Christina는 필리핀 YMCA의 역사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Orientation 이후 Rizal park 등을 구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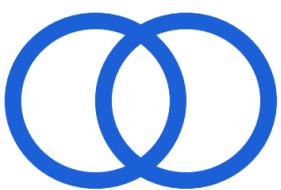
아카데미 올림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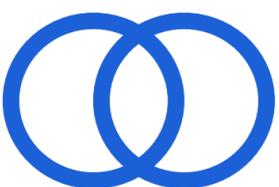
아카데미 올림픽은 팡가시안 YMCA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큰 행사이다. 9월 26일은 팡가시안 지역 내의 고등학교 총 30개 학교가 참가했으며 춤, 노래, 그림, 퀴즈, 성경 퀴즈, 스피치 대회 등의 다양한 종목에 각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들이 참가했다. YMCA volunteer들과 scholar들은 아카데미 올림픽의 각 종목이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 .



아카데미 올림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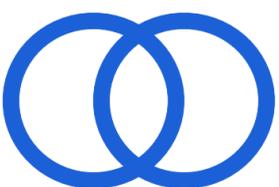
아카데미 올림픽



따갈로그어 수업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히, 아띠 하우스에서 코디네이터 롤리의 따갈로그어 수업이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일주일간 롤리에게 따갈로그어를 배운 경험이 있어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었다. 수업 이외에도 평소 생활하면서, 여러 친구들로부터 따갈로그어를 배우고 익혀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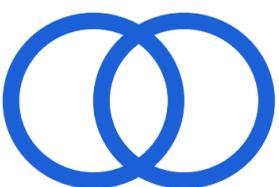




링가옌 비치



푸가로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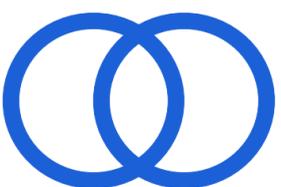




팡가시난 도착



카드게임의 결말



네 번째 장

우
리
의
이
야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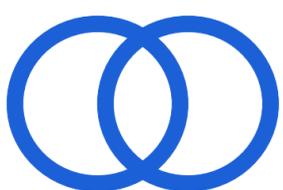
첫 느낌

가을을 겪지 않고 온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곳은 국내훈련 때 지겹도록 미워했던 그 날씨와 똑같다.

출발할 때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모두와 헤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손을 잡으며 “너희들이라면 둘이서도 잘 해낼 수 있을거야”라고 해주던 것을 떠올렸다가 비행기 창문에 비친 마닐라의 밤하늘을 쳐다보면 설레임이 두배가 되었던 것 같다.

그렇게 도착한 마닐라는 컬러풀한 지프니가 인상적이었고 언프리티랩스타에서 봤던 ‘졸리V’는 여기서는 유명한 패스트푸드점의 이름이었음에 놀랐다.(졸리bee다) 맥도날드에서는 밥과 치킨 한 조각이 세트메뉴로 나오고 모든 건물, 상점, 레스토랑에 경찰이 있어서 매번 가방을 검사한다. 이 밖에도 필리핀에서 발견한 새로운 인상을 찾아보자면 끝도 없을 것 같다.

필리핀을 2지망으로 골랐던 나는 내가 갈 나라가 필리핀으로 결정된 순간,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필리핀에 가게 되었구나” 하는 마음이었다. 지금은 ‘와, 나 필리핀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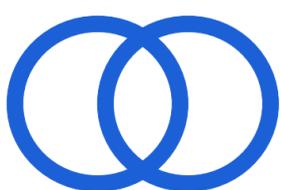
헤지의 이야기

팡가시난 YMCA 사람들

팡가시난 YMCA에는 지미총장님을 포함한 3분의 스태프들 말고도 내 또래의 친구들이 많이 머물고 있다. scholarship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 상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volunteer들은 남자이다. 누구보다 짓궂고 누구보다 농담을 좋아한다. 그런데 배려심이 깊다. 같이 쓰기에는 안 어울리는 형용사들일지도 모르지만 정말 그렇다. 거기다가 팡가시난 YMCA는 일년에 4번이나 외국에서 워크캠퍼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 영어를 잘 쓴다.

우리들은 만난 지 몇 주 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단시간에 많은 추억들을 쌓았다.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대해 아는 만큼 내가 그들에 대해 안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매번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잘 들으려고 노력해야지라고 반성한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 한꺼번에 들을 수는 없어도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싶다.

그 와중에 관계를 맺으면서 팡가시난 YMCA 사람들은 때때로 소심하게 변하는 나를 알아채고 먼저 다가와서 항상 곁에 있어주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아띠하우스에 고립되지 않고 9월 한 달을 무사히 보냈던 것 같고 적응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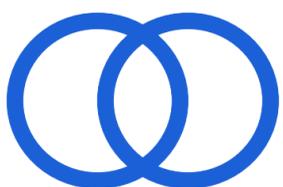


헤지의 이야기

벽찬 일상

활동은 오전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유롭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일정 아닌 일정'이 있다. 여기서 쉬는 쉬가 아니다. 정말 쉴 수가 없다. 생각하느라 바쁘고 관계에 치이고 손빨래하다 설거지하다 요리하다 일상에 치인다. 내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여기서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는 하지만. (나는 평소 밥상 차리기가 싫어서 밥을 먹지 않는 청년이었다)

여기서 살다보니 한국에서의 삶에는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요소들이 생략되어져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숍은 필리핀 YMCA에서 이뤄진 오리엔테이션에서 '매일 똑같은 것이 문화' 라고 이야기해주셨다. 한국에서라면 동일한 시간을 빨리 빨리, 더 효과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세탁기를 돌리고 식기세척기를 돌리고 바깥에서 사먹고. 하지만 지금 나는 팡가시난에서 일상을 보내면서 한국에서 내가 평화롭게 보냈던 일상과 쉬를 위해서 그동안 어찌면 많은 것들이 희생되고 있었겠구나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앞으로 필리핀에서의 일상들을 치열하게 때로는 즐겁게 보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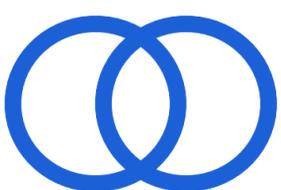




"너희 필리핀에 왜 왔니?"라는 질문에 나는 한동안 당연하게 "봉사하러요 (For volunteering)"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대답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필리핀은 '봉사, 도움이 필요한 곳'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자원활동이란 거창한 명목으로 온 나이지만, 필리핀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곳 사람들이 아침마다 손빨래를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신호등이 발달해 있지 않아 위험천만하다 해도. 총기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해도.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부지런히 아침을 시작하고, 신호등이 없지만 총기사고가 많이 일어나지만 그만큼 더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다. 나름의 삶의 지혜를 터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훨씬 더 행복하게 말이다(실제로 필리핀의 행복지수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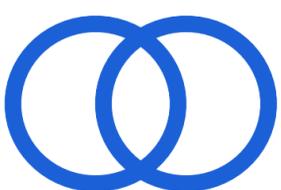
필리핀 사람들은 삶을 즐길 줄 알고, 삶에 여유가 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뿐이면 되지 않는가? 개발이란 명목아래 우리는 무수히 많은 소중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왔다. 우리가 문제면 문제였지 이들은 결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들에게서 내가 놓치고 살았던 그 무언가를 재발견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있다.



해진의 이야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나빠'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곳 사람들로 부터 삶의 여유와 행복을 배우고, 이곳 사람들은 한국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배워갔으면 좋겠다. 국제 교류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농담이다. 농담을 좋아하는 필리핀 사람들로 부터 농담을 체득하고 있다.

아무튼 지금 나는 굉장히 행복하다. 이곳의 친구들과 내 청춘을 함께 보낸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하다. 가끔은 꿈이 아닌가 싶다. 이것이 진정 꿈이라면 정말 깨고 싶지 않다.



보너스

우
친

리
구

의
들



우리의 친구들



설 내쉬



꾸야지미



레이날드



마빈



에멀슨



마크

Brother



레이들린



제이크



Raonatti



엘레나



롤리



김



테디



에몽



Brother



초코

베일

아르넬



카일



도미니크



주릭



카일



다음 달에 만나요!